

표지사진 : 정읍 도학초등학교
4월 독서문화교실

독서문화교실

1. 생각 나누기
2. 햄버거 놀이
3. 햄버거 클라주
4. 퀴즈

제11호

2009년 5월

더불어 사는 기쁨 함께 여는 통일 세상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소식

<http://blue21.or.kr>

발행인 최순삼 / 편집인 김진성 / 발행일 2009년 5월 1일 / 560-837 / 전주시 중화산동 2가 655-8(3층) / ☎ 063) 905-0218 (fax 227-0650)



특집 / 2009 고른기회 선정 및 활동계획

문화원 사무실 확장 이전 소식

문화원 홈페이지 개편

탐방인터뷰 / 최상렬 · 선신영 선생님

시론 /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교육청이 할 일

농촌학교 통폐합 문제

연재 / 들꽃이야기 · 통일이야기

생태만화 / 말강이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JeonBuk Teenagers Educational & Cultural Center

권두시

『금오신화』를 배우며, 가르치며

-上梅月堂書-

신은철(장계중 교사)

몸도 머리도 아둔한 이가
 감히 선생의 천년 꿈을 가르치려 드니
 저물녘 눈에 보얀 이내가 끼인 듯 아득하여
 이 머리 저 머리 고맙게 빌려와
 녀 달을 준비하였습니다.
 세상과 어긋나
 머리 꺾고,
 나비와 구름 벗 삼아
 길 떠나니,
 어떤 이는 선생에게
 미치광이, 천치라 하고,
 어떤 이는
 소라 부르고, 말이라 불렀다지요.
 비록
 살아 생전 흰머리 엉클어져 지저분하였어도,
 길을 가다 자빠지고 넘어져 무릎이 깨어졌어도,
 오늘 이 교실
 *먹머루빛 눈 우리 아이들 가슴, 가슴에
 그대 꿈꾸는 늙은이로 아로새겨졌으니,
 양생과 여인, 이생과 최랑의 눈물
 아롱아롱 떨어져 촉촉이 스미었으니,
 선생이시여,
 깊은 골짜기에서
 어서 오시라.

*도종환님의 시 '어릴 때 내 꿈은' 에서 빌려옴.

목차

- | | |
|---------------------------------|----------------------------|
| 02 권두시 “『금오신화』를 배우며, 가르치며” | 16 탐방인터뷰 |
| 03 인사말 배들평야의 푸른 보리처럼... | 으뜸회원상 수상한 최상렬 · 신신영 선생님 |
| 04 소식 1 본원 사무실 이전, 2009 정기총회 개최 | 18 교육시론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
| 05 소식 2 문화원 홈페이지 새롭게 개편 | 20 서평 최고의 경험이 희망의 싹을 틔운다 |
| 소식 3 교육소외 계층 성금 전달 | 22 영화비평 위낭소리 들리는 들녘을 그리며 |
| 06 소식 4 교사를 위한 논어교실, 음악치료 연수 실시 | 24 투고 소규모 학교 통 · 폐합은 재고되어야 |
| 07 소식 5 전북 교육 네트워크 워크샵 | 26 생태만화 - 꼬마 애벌레 말강이 |
| 08 2009년 집행부 및 임원 소개 | 28 연재 - 조경희 선생님의 들꽃이야기 |
| 10 기획/특집 ‘고른기회’ 배움터 | 29 연재 - 장재성 선생님의 통일이야기 |
| 2009 독서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 소개 | 30 회원동정/신입회원 가입/인사이드 현황 |
| 어린이 독서문화교실 / 청소년 독서문화교실 | 31 공우유 사업/문화원 상징 소개 |

이사장

인사말

배들평야의 푸른 보리처럼...



이미영 (이사장, 전주공고 교사)

지난 번 동학농민혁명 발자취를 따라 정읍에 다녀왔습니다.

100여 년 전 고부농민들의 함성이 가득했을 너른 배들평야에는 싱싱하게 잘 자란 보리로 온통 푸른 빛깔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기어이 이겨내고, 푸른 빛깔로 자라는 보리들의 강한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제가 20대 젊은 교사 시절, 교육민주화운동을 다짐하며 동료들과 함께 자주 찾던 곳입니다. 교사들의 작은 손짓 하나도 신분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던 매서운 추위의 겨울 같던 80년대, 이 황톳재에 오르면 힘이 났고, 드넓은 들판을 바라보면 왠지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전주YMCA중등교사협의회를 결성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살인적인 보충자율학습과 비인간적인 일제교사를 폐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입시교육, 성적 경쟁 교육, 암기하고 정답 맞추는 교육, 죽은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인간다운 교육, 산교육을 시키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오늘, 과거 20여 년 전의 학교 모습이 다시 21세기 현재의 학교의 모습이 되고 있는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다시 학업성취도평가라는 이름으로 일제 교사가 실시되고, 교육계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최근 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성적을 전국의 232개 시군구 별로 공개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슬로건인 “자율과 경쟁”이 결국은 학교를 일렬로 줄 세워 경쟁시키려는 것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교육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적중심 경쟁 교육이 21세기 다양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간을 육성하지 못하며,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이 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1980년 당시 교육 현장의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는 주체로 나선 이들은 교사들이었지요. 교사들이 해직을 무릅쓰고 잘못된 교육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또다시 경쟁위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변해가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교육 해결의 중심 고리는 교사 못지않게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들임을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동의 없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교육 정책과 교육 운동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허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는 협력자여야 합니다. 오늘의 교육 문제를 개선하는 첫걸음은 불신으로 점철되어있는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이 아닐까요? 교사와 학부모 더 나아가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정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문화의 시대,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학교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황톳재에서, 고부로, 풍남문을 바라보며 다시 폴뿌리 교육을 다짐해봅니다. 올해는 학교 현장에서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아이들을 많이 만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문화원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교육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회원들의 활동과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푸르른 신록이 새 희망을 이야기하는 4월! 배들 평야의 푸른 보리처럼 교육의 희망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교육가족들의 보람찬 날들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009. 4

이사장 이미영 드림

교사와 학부모 더 나아가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정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문화의 시대,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학교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소식 1

사무실 이전 및
정기총회본원 사무실 확장 이전 및 2009 정기총회 개최
- 새 보금자리에서 새 출발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사장 이미영, 원장 최순삼)은 2월 25일(수) 오후 2시부터 본원 교육실에서 100여명의 내빈과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원 사무실 입주식과 제5차 정기총회를 열어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활동과 전북교육 희망 찾기를 위한 2009년 힘찬 출발을 하였다.



본원 사무실은 지난 2월초 중화산동 전주 근영여고 정문 부근으로 이사를 하였다. 새로운 사무실에는 예전 사무실에 비해 많이 넓어져, 사무실, 회의실, 이사장실을 비롯해, 4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실을 갖추고 있다. 특히 교육실은 회원들을 위한 각종 연수와 세미나 등을 열 수 있는 공간으로 이후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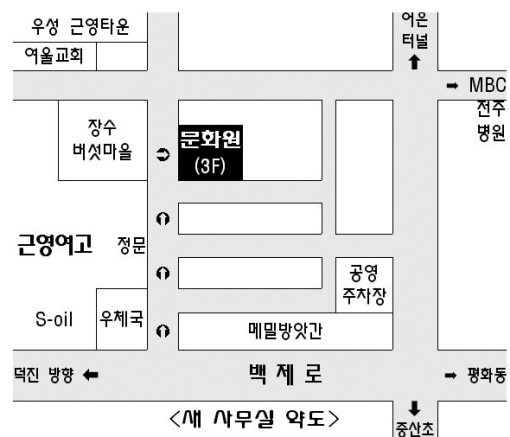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사무실 입주식에는 전라북도 도의회 이영조 교육복지위원과 민주평통 전주시협의회 고영호 회장, 이광철 전북대학교총동창회장 등 내빈과 회원 100여명이 참여하여 사무실 확장 이전을 축하해 주었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된 2009년 제 5차 본원 정기총회에서는 19차 이사회에서 결의된 2008년 사업과 결산 보고, 정관 변경, 임원개선, 2009년 예산 및 사업계획 등을 보고 받고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특히 이날 회원들은 2009년에는 교육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업과 교육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확대, 전북지역 교육단체 간 교육네트워크 강화, 독서교육 활성화, 통일교육 활성화 등의 사업을 더욱 내실 있고 알차게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날 19차 이사회에서 재선임된 이미영 이사장과 최순삼 원장은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적 배려,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한 대안 마련으로 본원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다” “조직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회원 배가 노력과 활동가들의 교육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본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우리 문화원은 교육과 문화로부터 소외된 아동 청소년들의 삶을 보듬어주고, 전북교육행정 감시와 전북교육 대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소식 2, 3

홈페이지 개편
성금 전달

문화원 홈페이지 새롭게 개편

“www.blue21.or.kr”를 시작 화면으로

새 봄과 함께 본원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본원 출범과 함께 제작된 홈페이지가 편안하게 참여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사진과 동영상 기술 등의 기술적 발달에 적응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새롭게 개편한 홈페이지는 먼저 산뜻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그리고 문화원의 각종 활동 내용과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문화원 회원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였다.

홈페이지 개편에 노력해 온 구자상 정보통신국장(이리공고)은 “앞으로 회원뿐만 아니라 독서교실이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교사, 학부모,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원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홈페이지 주소는 기존의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www.blue21.or.kr”이며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새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기존 회원도 새롭게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해야 한다. 문화원 회원이 아니더라도 웹회원으로 가입하면 많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북녘어린이 콩우유보내기 및
교육소외 계층 성금 전달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지난 해 교육소의 계층 및 북녘어린이 돕기 후원의 밤을 전주 웨딩캐슬에서 500여명의 회원과 내빈,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 날 후원 행사를 통해서 마련된 후원금은 7,773,000원으로, 이를 북녘어린이 콩우유보내기 사업에 400만원, 전주시 교동 송암산 기슭의 신실공부방에 200만원, 완주 화산면 화산지역아동센터에 177만 3천원을 전달하였다.

앞으로도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소외 계층에도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형태의 지원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의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8천여만 원이 넘는 예산을 받아서 전북지역의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소식 4

교사를 위한
강좌

교사를 위한 각종 강좌 열려

- 논어교실, 음악치료 등 다채로운 연수 실시

사)전북청소년문화원은 2009년에 회원 및 교사, 학부모, 시민들의 교육 전문성 향상과 올바른 교육관 모색을 위한 각종 연수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3월과 4월 ‘교사를 위한 재미있는 논어교실’과 ‘음악을 통한 치료’에 대한 강좌를 마련하여, 회원 및 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다.

고전을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

- 교사를 위한 재미있는 논어교실

고전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는 “교사를 위한 재미있는 논어교실”이 문화원 교육실에서 문채병 교사(전주생명과학고)의 강좌로 진행되고 있어 많은 교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 일부터 시작된 강좌는 7월 일까지 2주 1회 월요일에 열린다.

고전은 물론 과거에 쓰인 글이지만, 선현들의 인간과 사회, 우주에 대한 깊은 사색을 볼 수 있어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의미, 사회와 자연, 우주 속에서의 ‘나’라는 존재의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특히 교사들은 매일 아이들을 만나고,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때론 타성과 관성에 젖어, 그 만남의 의미, 가르침의 의미를 깊게 사유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전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

특히 『논어』는 2천 5백년 전 춘추전국시대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던 정국에서 공자가 자신을 세우고, 세상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혼란스러운 시대에 더욱 깊은 지혜를 주고 있다.

“교사를 위한 재미있는 논어교실”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개별 강좌도 수강할 수 있다.



음악을 통한 몸과 마음의 치료

- 음악치료의 매력과 가능성

사회의 빠른 변화, 경쟁의 심화, 경제 위기 속에서 어른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감을 느낀다. 아이들 또한 지나친 입시교육으로 인한 성적 스트레스, 문화적 정서적 결핍,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으로 인한 몸 건강의 해침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른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 해침을 이겨내는 노력, 교사 전문성 향상을 통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치료를 위하여 문화원에서는 예원대학교 음악치료 전문교수인 김선식 교수를 초청하여 “음악치료를 통한 몸과 마음의 치료” 강좌를 지난 4월 22일~24일 3일간 문화원 교육실에서 열었다.

음악치료는 예술(음악)의 영향력을 과학이라는 그릇에 담아 신체건강을 복원,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체계적인 치료과정이다. 강연은 3일에 걸쳐 음악치료의 매력과 필요성과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문화원은 앞으로도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들을 위한 의미있는 연수와 강좌를 계속적으로 마련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적 대안을 마련하여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소식 5

전북
교육네트워크전북지역 교육네트워크(가칭) 워크숍 열려
- 초청강연회, 사례보고 및 2009년 사업 방향 논의

지난 2월 14일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교육실에서는 전북지역에서 지역교육 사업과 교육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6개 기관, 단체 회원 30여명이 참여하여 전북지역 교육네트워크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2009년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사장 신인령)으로부터 고른기회 배움터로 지정된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익산교육시민연대, 익산농촌교육연구회, 진안YMCA, 전북농촌교육연구회 등 5개 단체와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센터가 참여하였다.

워크숍은 2008년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 사례 및 성과와 2009년 사업방향 공유, 단체 간 연대 및 네트워크 강화, 교육복지 사업의 중요성과 방향성 모색 등을 주제로 1부 초청강연회와 2부 사례발표 및 토론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초청강연회에는 양병찬(공주대) 교수가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교육공동체 창조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양병찬 교수는 현재 진행되는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복지 사업을 소개하고,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교육복지의 근본정신에 맞는 내실있는 교육복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단체들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2부 사례발표 및 토론회는 활동 사례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먼저 익산농촌교육연구회는 2008년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익산농촌교육공동체 운영 사례를 발표하였다. 익산농촌교육연구회는 성당초등학교 중심으로 향토문화교육, 환경생태교육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작은 학교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인근학교 협력 프로그램으로 함라초, 웅포초, 금성초 등과 함께 주말 동아리, 여름 문화화교실, 공동체 학교 등을 열었으며, 익산농촌어린이한마당도 개최하였다. 2009년에는 별밤음악회 등 농촌 어린이 청소년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다문화 가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농촌학교 교사 및 학부모 연수 지원 등을 통해 익산농촌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진안YMCA는 2008년 씨앗을 틔우는 그린스쿨 “씨알학교” 운영을 주제로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을 전개하였다. 씨알학교에서는 독서교실 및 독서캠프, 독서 축제, 도시 및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다. 2009년에도 진안지역 지역아동센터 6개기관을 중심으로 씨알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익산교육시민연대는 2009년 새롭게 고른기회 배움터로 지정된 단체로 청소년 독서캠프 운영, 익산 청소년 신문 ‘벼리’ 제작,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강좌,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인문학 강좌 등을 열 예정이다.

또한 이 자리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센터가 참관 단체로 참여해,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 사업의 의의, 현황과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문화원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 단체의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전북지역 교육네트워크는 앞으로 교육소의 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며, 교육복지 사업을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단체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교육소의 계층 지원, 지역 교육 살리기, 작은 학교 살리기, 농촌 교육 살리기 사업,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교육 사업에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더 많은 단체와의 교육 연대 활동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사회 개최

집행부 및 임원 소개

제 19차 이사회 열어 임원 선출

이미영 이사장, 최순삼 원장 선임



제 19차 사)전북청소년교육 문화원 이사회가 지난 2월 9일 6시 이미영 본원 이사장과 14명의 이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 이전한 본원 교육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본원 정관 개정, 2008년 결산 및 2009년 사업계획, 이사장·원장·이사·감사 등 임원 선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9년 2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원장·이사(7명)·감사 등 임원을 선출하였다. 1대 이사장인 이미영(전주공고)님이 2대 이사장으로, 2대 원장인 최순삼(북홍중)님이 3대 원장으로 재선임 되었다. 또한 박기업(전주고)님을 비롯한 7명의 이사들도 재선임 되었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된 권오인(설천고) 감사의 후임으로 남상팔(전주공고)님이 감사로 선임되었다.

인사말을 통해 신임 이미영 이사장은 “새롭게 단장한 사무실에서 열리는 이사회이기에 더욱 뜻 깊다. 앞으로 문화원이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북교육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였다. 또한 최순삼 신임 원장은 “문화원 사업을 통해 회원들이 먼저 성숙해지고, 마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사람이 남는 문화원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2009년 임원 및 집행부 소개

본원 활동에 헌신적인 노력과 관심을 갖고 수고하시는 집행부 및 임원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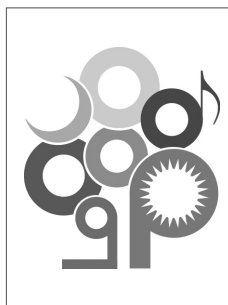
이사 : 이미영 (이사장, 전주공고 교사) 김명희 (부안 보안중 교사) 노장환 (서문초 교사)
문채병 (전주생명과학고 교사) 박기업 (전주고 교사) 서진용 (고부중 교사) 송승용 (원평초 교사)
이영환 (인후초 교사) 장재성 (이리남중 교사) 정우식 (이일여고 교사) 정은숙(봉동초 교사)
주종일 (금마초 교사) 최병훈 (전북체육중 교사) 최순삼 (순창북홍중 교사)
한은수(원광정보예술고 교장)

감사 : 남상팔 (전주공고 교사) 조경희 (인봉초 교사)

고문 : 김윤수 (술내고 교사) 박일범 (전라북도 前교육위원) 송병주 (사)지역농업연구원 이사장

이광철 (전북대 총동창회장) 이종호 (전북대 교수) 최규영 (진안문화원장)

자문위원 : 박세훈 (전북대 교수) 안도현 (시인, 우석대 교수) 황만길 (사)지역농업연구원장



전북청소년
교육문화원



이사장 이미영
전주공고 교사



고문 김윤수
(술내고 교사)



고문 박일범
(전라북도 前교육위원)



고문 송병주
(지역농업연구원 이사장)



고문 이광철
(전북대학교 총동창회장)



고문 이종호
(전북대 교수)



고문 최규영
(진안문화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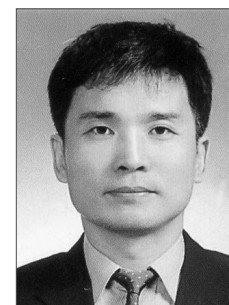
자문위원 박세훈
(전북대 교수)



자문위원 안도현
(시인, 우석대 교수)



자문위원 황만길
(지역농업연구원 원장)



부설 연구소장 최병훈
(전북 체육중 교사)



원장 최순삼
(순창 북흥중 교사)



부원장 정우식
(이일여고 교사)



사무처장 이영환
(전주 인후초 교사)



조직국장 송승용
(김제원평초 교사)



정보통신국장 구자상
(이리공고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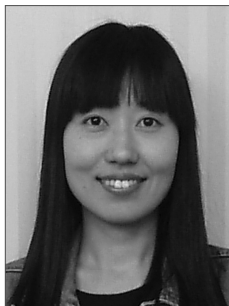
총무국장 이선화
(사무실 상근)



정책기획실장 최선호
(완주중 교사)



편집국장 김진성
(원주 비봉초 교사)



편집부장 전지민
(정읍 한솔초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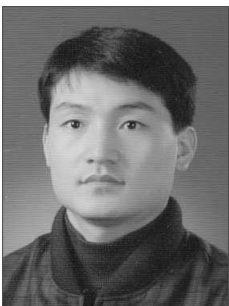
교육복지국장 노장환
(전주 서문초 교사)



교육연수국장 홍인재
(전주 서신초 교사)



교육연수부장 조인향
(정읍 도학초 교사)



독서·문화교육실장 최봉석
(완주 소양중 교사)



어린이독서교육국장 류정아
(전주 여울초 교사)



어린이독서교육부장 노영운
(전주 서곡초 교사)



어린이문화국장 경종호
(전주 효림초 교사)



어린이문화부장 최상렬
(전주 삼천남초 교사)



청소년문화국장 유인선
(전주 신일중 교사)



통일교육실장 김현봉
(익산 어양중 교사)



통일교육국장 신성하
(전주 완산초 교사)

기획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

문화원, 2009 고른기회 배움터로 지정 교육소의 아동/청소년 독서·문화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하 문화원)은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사장 신인령)으로부터 8천만 원을 지원 받아 교육소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독서·문화 체험 교육”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12월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1월에 고른기회 배움터로 지정되었으며, 3월부터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8년 고른기회 배움터 성과 이어 진행

2009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은 이 사업은 2008년 ‘교육소의 청소년을 위한 독서문화체험’ 공동프로그램을 확대, 심화시켜 운영한다. 2008년 사업에서는 청소년 독서교실, 청소년 독서캠프, 중등 학교 독서문화교실, 농촌 청소년의 도시문화체험, 익산 학생신문 ‘벼리’ 제작, 익산 청소년 독서캠프 등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에는 1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교육소의 아동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목적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은 교육 소의 아동 청소년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그들의 자존감, 지적능력, 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에서는 어린이 독서교육, 청소년 독서교육, 독서행사, 통일·역사 문화교실, 농촌체험교실, 교사 연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진행된다. 이 사업에는 문화원을 비롯하여, 초등독서교사모임 ‘읽고살고’, 중등독서교사모임 ‘책만세’ ‘책나들’, ‘지역사회자원개발 연구소’, ‘전북농촌교육연구회’, ‘지역농업연구원’, ‘전주덕진자활 민들레 공부방’, ‘전북겨레하나’ 등 9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교육소의 아동의 전인적 성장 위한 “2009 독서 문화 체험 교육”

프로그램명		운영방식	사업목적
1. 어린이 독서교육	어린이 독서문화교실	월 2회	· 독서 교실을 통한 주 5일제 토요일을 이용하여 독서활동을 일상화 ·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 · 독서와 관련된 공동 활동 및 토론
	어린이독서캠프	년 1회	
2. 청소년 독서교육	학교 독서문화교실	월 1회	· 독서의 즐거움을 통한 책 읽는 문화 조성 · 교육기회 균등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 · 주5일제 토요일업일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회복
	주말 청소년 독서교실	월 2회	
	청소년독서캠프	년 1회	
	청소년 독서문학기행	년 2회	
3. 독서 행사	청소년독서 토론대회	년 1회	· 다양한 독서 행사를 통해 고른기회 사업을 홍보하고,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 고른기회 활동을 총화한다.
	책문화축제	년 1회	
4. 통일,역사 독서문화 교실	통일 독서문화교실	월 1회	·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역사 · 통일 주제 독서 교육 기회 제공 · 저소득층 학생 서로간의 유대를 강화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
	역사 독서문화교실	연 4회	
5. 농촌 체험 교실	농촌체험교실	월 1회	· 농촌 어린이에 대한 교육기회 및 체험활동 확대 · 현장을 체험하고 접촉하여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 지역사회 체험활동 영역 확대 및 지역 사랑
6. 교사 연수 및 정책개발	교사연수 및 워크샵	월 1회	· 교육복지에 대한 의식 제고 · 독서 문화 교육 전문성을 함양 · 교육소의 계층 청소년을 위한 교육정책 개발
	교육정책토론회	년 1회	
	교사문학기행	년 1회	
자료보급	자료제작 및 보급	년 1회	· 자료개발을 통해 공동프로젝트 실행의 내실화 · 공동프로그램 일반화를 통한 자료의 보급 및 확대

이러한 사업을 통해 독서 · 문화 활동 단체 간 교육네트워크를 더욱 확대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독서 · 문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또한 교육소의 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정책 개발을 개발하고, 교사 교육을 통해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교육 복지 사업을 위한 인적 물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을 비롯하여 교육소의 계층 아동 ·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정책 개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및 돌봄학교 사업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을 다양하게 펼칠 예정이다.

기획

어린이
독서교실

책과 함께 하는 토요일독서문화교실 - 어린이 '독서문화교실' 운영 -

초등 교사들의 책읽기 모임인 '읽고살고' (회장 류정아, 여울초) 회원들이 단위학교에서 진행하는 삼성고른기회재단과 전북도교육청의 후원을 바탕으로 학교 독서문화교실이 운영된다. 이번 독서문화교실은 지역적으로 교육 여건이 다소 열악한 도시 학교와 농촌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며 '읽고살고' 회원들은 해당 학교가 아니더라도 지도교사로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이번 독서문화교실은 책읽기 뿐 아니라 문화 체험을 병행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책을 읽고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직접 해 보면서 독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문화를 직접 접하고 누리는 삶의 주인공으로서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담당 교사	운영 시기
전주이중초	윤영집	1학기 4월~6월
전주서신초	홍인재	
전주완산초	신성하	2학기 9월~11월
전주삼천남초	최상렬	
완주비봉초	김진성	매월 둘째주 토요일
정읍도학초	조인향	
		오전 9시 - 12시

4월 어린이 학교독서문화교실 풍성하게 열려

완산초등학교 4월 독서문화교실

교육소의 아동/청소년이 많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로 지정된 전주완산초등학교(교장 오기수)에서는 지난 4월 11일(토) 토요일휴무일임에도 많은 교직원과 학생 50여명이 참여하여 학교독서문화교실을 열었다. 고학년 반(4~6학년), 저학년 반(2~3학년), 1학년 반 등 3반으로 편성하여 진행하였다. 고학년 반은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어린이를 위한 북한그림 이야기』를 읽고 활동을 하였고, 저학년 반에서는 '가족'을 주제로 『우리 가족입니다』라는 책을 읽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 등 대부분 저소득층 아이들이었는데, 이러한 독서활동을 통해 삶의 자신감과 적극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도학초등학교, 서신초등학교 4월 독서문화교실

또한 정읍시 덕천면에 있는 농촌 소규모학교인 정읍도학초등학교(교장 유양규)에서도 주 5일제 토요일휴무를 맞아 도학초등학교 학교독서문화교실이 열었다. 고학년반(4~6학년)과 저학년반(1~3학년)반으로 나뉘 2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독서문화교실을 진행하였다. 고학년 반에서는 환경을 주제로 『햄버거가 뚝』 책을 읽고 환경콜라주와 햄버거 놀이를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소중한 체험을 하였다. 저학년반에서는 『말해버릴까?』라는 책을 읽고 비밀상자 만들기, 비밀 편지 쓰기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4월 17일(토)에는 서신초등학교(교장 이어상)에서는 홍인재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의 지도로 '도토리 예배당 종지기 아저씨'라는 책으로 독서문화교실을 개최하였다. 책 내용으로 인형도 만들고, 그림자극도 공연해 보았다.

또한 4월 25일(토)에는 전주아중초등학교와 전주삼천남초등학교, 완주비봉초등학교에서도 4월 학교독서문화교실이 개최되었다. 앞으로 학교독서문화교실은 매월 둘째 주나 넷째 주 토요일에 월 1회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읽고살고〉 어린이 독서교실도 열릴 예정



초등 책읽기 모임인 〈읽고살고〉(회장 류정아)에서 직접 운영하는 〈읽고살고〉 어린이 독서교실도 장소를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교육실로 옮겨 5월부터 연다. 초등학교 현직교사들이 다년간 연구하고 쌓아온 독서교육의 노하우를 살려 문화 체험 중심으로 운영한다. 2008년 최명희 문학관에서 4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매월 참

여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던 〈읽고살고〉 어린이 독서교실은 책읽기 문화를 확산시키고 토요일무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어린이 독서교실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4시에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교육실에서 열리며, 참가자들은 주교재를 구입하여 읽고 참여해야 한다.



월 일	주제	지도교재		지도교사
		주교재	부교재	
5.9 (토)	역사	책과 노니는 집 (이영서/문학동네)	직지(조경희/대교출판)	류정아(전주여울초) 노영윤(전주서곡초)
6.13 (토)	통일	문익환(김남일/사계절)	도토리에배당종지기 아저씨 (권정생/분도출판사)	전지민(정읍한솔초) 김지연(김제초)
7.11 (토)	동시	불량꽃게(박성우/문학동네)	나뭇잎사귀 뒤쪽마을 (안도현/실천문학사)	경종호(전주효림초) 조인향(정읍도학초)
9.12 (토)	공부란?	난 원래 공부 못해 (은이정/창비)	그 밖에 여러분(이가을/창비)	노영윤(전주서곡초) 유성례(전주서곡초)
10.10 (토)	예술	명화를 읽어주는 어린이 미술관 (로지디킨스/시공주니어)	생생한 역사화에 뭐가 담겨있을까 (이주현/다섯수레)	전지민(정읍한솔초) 김지연(김제초)
11.14 (토)	공존	토끼 청설모 까치 (장주식/국민서관)	미친개(박기범/낮은산)	이정옥(전주만수초) 류정아(전주여울초)

기획

청소년
독서교실

‘놀토’를 책이랑! 친구랑! 청소년 독서문화교실



2009년 청소년독서교실 계획

2009년도에도 중등 교사 책읽기 모임 ‘책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세상’(이하 책만세)을 중심으로 독서교실이 변함없이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교육장소를 문화원 내에 교육실을 마련하여 내집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책임담임교사제를 도입하여 평상시에도 전화와 이메일, 카페 등을 이용하여 독서를 지도하고, 매월 1회 토요일무일 오전 9시~12까지 진행되는 독서문화교실에서 토론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월일	지도교사	읽고 이야기 나눌 도서	주제
3월 28일	지도교사 전원	활동안내 및 독서탐색	O.T.
4월 11일	신은철	정은경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자유와 양심
5월 23일	유인선	이형월 <파리대왕>	인간의 본성
6월 13일	이신영	홍미숙 <왕따>	관계
9월 12일	최제윤	조해양 <체르노빌의 아이들>	환경
10월 24일	공 동	신동엽의 문학세계를 찾아서	문학기행
11월 14일	황희경	정선아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관심과 사랑
12월 12일	신은철	최봉석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장애극복

3월, 4월 청소년독서교실 열려

3월 28일(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2009 1차 책만세(회장 최봉석, 소양중) 청소년 독서교실 오리엔테이션이 학생 37명, 교사 10명, 학부모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1년 동안 진행될 독서교실을 안내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 20여명이 참여하여, 자녀들의 독서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4월 11일(토) 9시~12시에 진행된 2차 청소년독서교실은 ‘자유와 양심’이라는 주제로 신은철(장계중) 선생님, 정은경(완주중) 선생님 등의 지도 아래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푸른나무)이라는 책을 선정하여 책을 읽고, 느낌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관련 영화를 감상하는 등의 다양한 독후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신 신은철 선생님의 모습이 많은 감동을 주었다.

또한 단위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독서문화교실도 소양중, 신일중 등에서 열렸다. 소외된 학생이 많은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학교독서문화교실은 소양중학교, 신일중학교, 곤지중학교, 구이중학교, 완주중학교, 익산부송중학교에서도 매월 1회 이상 열릴 예정이다.



기획

투고
교육복지방향

교육복지 사업의 정신과 지역 교육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양병찬(공주대 교수)

학교는 지역사회에 열린 자세로 다가가야 하고, 지역사회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 마을에서 책임진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의 목표를 추진해나가는 노력이 교육 복지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렇기에 지역의 교육시민단체들이 이러한 교육네트워크 구축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교육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는 사회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이다. 사회양극화로 인해 교육격차가 생기고 그 교육격차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도 힘을 잃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상승이동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은 깨지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교육 양극화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적 노력이 정부와 민간 부분에서 확대되고 있다. 정부차원 정책으로는 도시 빈곤 지역에서 학교가 중심이 되어 교육소외 아동 청소년 사업을 진행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전북에서 2009년 40여 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농산어촌 교육복지 사업으로 농산어촌 연중 돌봄 학교 육성, 농촌전원학교 운영 등에 2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고른기 회장학재단 등 민간 부분의 교육복지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복지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정신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보상교육 차원에서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관점이 필요하다. 교육복지 사업은 교육 기회의 균등 이념을 넘어서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당하는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보상적 교육(補償教育, compensatory education)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념을 지향한다.

둘째, 교육소의 계층 아동 청소년을 시혜 대상이 아닌 주체형성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교육 복지 사업이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 차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의 기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상교육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내 모든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과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것은 모든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성장하고 발달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교육적 책임이 지역사회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복지 사업에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빈곤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의 교육력을 회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때 그 핵심적 과제가 지역의 학교와 지역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다. 지역 교육네트워크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지역에서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만들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특정 사업만이 아니라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종합교육복지 사업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제 농촌 지역이나 도시 빈곤지역의 교육적 문제 해결은 학교와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는 지역사회에 열린 자세로 다가가야 하고, 지역사회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 마을에서 책임진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의 목표를 추진해나가는 노력이 교육 복지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렇기에 지역의 교육시민단체들이 이러한 교육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탐방인터뷰

최상렬 선생님

구수한 보리밥 같은 남자, ‘으뜸회원상’을 수상한 최상렬 선생님을 만나다.

지난 2월 22일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교육실에서 진행된 2009 정기총회에서는 회원 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한 회원에게 으뜸회원상을 시상하였다. 이번 호 탐방 인터뷰에서는 2009 정기총회 초등학교 가운데 으뜸회원을 수상한 최상렬 선생님을 만나 보았다. 서글서글한 외모에 순박한 웃음을 지닌 최상렬 선생님과 인터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최상렬 선생님만의 분위기가 최상렬 선생님의 그간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듯 싶었다.

초등책임기연구회「읽고살고」의 회원인 최상렬 선생님은 올해로 교직경력 10년차 선생님이다. 모교인 남원 남평초등학교를 초임으로 시작하여 남원 용성초등학교, 전주 동초등학교, 전주 만수초등학교를 거쳐 현재 전주 삼천남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적지 않은 학교의 이동에 대해 필자가 묻자 “저는 인연의 복이 많은가 봐요. 많은 학교에서 근무를 한 덕에 좋은 교장, 교감 선생님과 멋진 선후배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항상 그 분들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 인생의 목표가 ‘긍정적으로 살자’ 라며 그 다음은 없다고, 지금 사는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산다더니 하는 말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에 최 선생님의 긍정적인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최상렬 선생님

최상렬 선생님의 고향은 전북 남원 이백면의 강촌이라고 한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근처에 방죽도 있고 골짜기도 깊어서 유년시절의 추억이 많다고 했다. 4남 형제의 막내라서인지 행동이 구잡스러워 동네 어른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될라고 그러냐?” 라는 말도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 것이다. 간간하고 반듯한 선생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삼촌같이 편안하고 넉넉한 모습으로 학급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음은 말이다. 반듯한 선생님의 모습이 되기는 쉬워도 삼촌같이 편안한 선생님이 되기 어려운 법이니까. 남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도 독서와 게임이라 말하는 최 선생님은 둘 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자기 역시 좋아하는 것이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야기 할 때 말은 통하는 정도라고

최근 최상렬 선생님께 좋은 소식이 있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며칠 전 예쁜 아들을 순산했다는 소식이었는데 본인인은 아직 실감이 안 난단다. 하지만 요즘 아기 보는 재미에 힘든 줄 모른다고. 벌써부터 눈을 뜨고 자신을 뽐낼뽐망 쳐다보는데 그 댄 기분이 참 좋아진다고 한다. 먹고 자는 것은 자신을 닮았으면 좋겠다는 최 선생님은 “등만 대면 자야하는데...” 라며 특유의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개인적으로 올해의 목표는 좋은 아빠가 되는 거란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으뜸 회원상 수상소감을 여쭙었다. 송구스럽다는 말로 운을 댔 최 선생님은 자신보다 더 열심히 하고 헌신하신 여러 선후배 선생님들이 많은데 자신이 받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로 자신을 낮추었다. 그리고 능력은 비록 부족하지만 작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겠다는 말을 전했다.

현재 몸담고 있는 독서모임을 독서를 좋아하고, 연구하는 선생님들의 모임이라기보다 뭐든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선생님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는 최상렬 선생님. 필자 또한 최상렬 선생님과 짧은 인터뷰에서 열정적인 선생님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간다. 2009년에는 여러 일로 바쁜 와중에서도 삼천남초등학교에서 토요일무일을 이용하여 학교독서교실도 연다고 한다.

탐방인터뷰

선신영 선생님

순수하고 맑은 마음과 웃음!

‘으뜸회원상’ 수상한 선신영 선생님



선신영 선생님

휴일에 가끔 건지산에 간다. 산에 들어서면 싸한 나무냄새가 밀려오는 지점이 있다. 마치 결계지에 들어가는 기분이 든다. 선신영 선생님께서 부끄러워하시며 으뜸회원상을 여러 번 고사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다. 부끄러움을 결계를 풀어보니 교지 같은 학급문집을 내고, 학급을 운영하고, 학교 선생님들과 방학마다 독서교실을 열고, 전주서부국어교사모임 모임을 운영하고 계신다.

아! 매력적인 부끄러움. 중등회원 가운데 으뜸회원으로 수상을 한 선신영 선생님은 서부국어교사모임 책나들(책갈피 나명들명)의 회장을 맡고 계신다. 아래는 선생님과의 일문일답을 간추려보았다.

질문. 근무하시는 학교 이야기 들려주세요.

전주덕일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공단 지역에 있는 학교라 아이들 형편이 열악하기 그지 없어요. 학기 초 가정방문을 해 보니 대부분 아이들은 셋집에 살고, 이른바 ‘닭방’이라는 것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당연히 아이들은 학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공부할 수 없어요. 부모님 대부분은 공장에 나가시거나 일일 노동일을 하시거나 식당일을 하셔서 밤 8시 이후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을 형편이 못되어 거의 컴퓨터에 매달려 있지요. 주변 환경도 열악해서 도서관은커녕 서점도 없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의 심성은 참 고와요. 선생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지요.

질문. 교직경력 동안 기억에 남는 일들이나 그간 경주해 왔거나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는?

뭐니뭐니 해도 교육운동을 들 수 있겠지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학교교육의 총체적인 모순들이 전교조를 통해 거의 해결되리라고 믿었던 순진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 순진함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을 거예요.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속성상 어찌할 수 없이 조합주의로 흐르고, 국민들에게서 지탄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전교조를 향한 관심을 그만둘 수 없어요. 우리 문화원 식구들이 전교조에 모두 들어간다면 전교조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헛된 꿈을 꾸기도 하고요. 아마 이 기사를 읽는 우리 문화원 선생님들 대부분은 ‘괴식’ 헛웃음을 날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교직에 들어서면서 가장 두려워 했던 것은 ‘어깨 축 처진 선생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당당하고 싶었지요. ‘너희들이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나가는 데 거리낌 없는 선생이 되마. 너희들이 행복하게 현재를 누릴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 했지요. 결과는? 보시는 대로예요. 끔찍하죠.

질문. 현재 몸담고 있는 교과모임과는 무슨 사이신지? ..

아마 국어교사모임이 없었다면 질식해 죽었을지도 몰라요. 국어교사모임은 제게 숨막힌 학교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숨통을 제공해주었어요. 교수비법이니, 독서지도 방법이니 등은 차후의 일이었어요. 우선 수다 떠는 게 급했죠.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 뒤에서 호박씨 까는 재미로 받은 해소했어요. 수다 속에서 학급 아이들 지도하는 방법도 나누고, 어떻게 아이들을 품나게 가르칠 것인지 고민하기도 했지요.

질문. 으뜸회원 수상 소감?

수상 소식을 듣고 매우 창피했어요. 그동안 문화원 식구들이 얼마나 애들을 쓰셨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어떻게 이런 귀한 상을 엄감생심 꿈꾸었겠어요. 무거운 쇳덩이를 머리에 이고 있는 기분이었죠. 다만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할 따름이죠.

질문. 기억되는 소중한 인연

지금까지 만난 모든 이들이 제게 스승이었다는 생각 속에 잠기곤 해요. 고된 행로가 시작될 때마다 늘 지표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 가장 고마운 인연은 김혜선 선생님과 이미영 선생님이었어요. 김혜선 선생님은 교육운동 초기 시절 저를 모임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준 분이었고, 이미영 선생님은 소극적이어서 늘 뒷전으로 나섰기 일쑤인 저를 다그쳐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남원한빛중학교에 계신 김연정 선생님은 지금도 마음 속에서 못난이 저에게 응원을 보내주곤 해요. 단점을 장점으로 치환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선생님이지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



최순삼(원장, 북흥중 교사)

자녀들이 새롭게 학교에 입학하거나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면, 학부모들은 많은 기대도 하지만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하다. 학부모들은 ‘혹시 내 아이가 새로운 학교와 학급에서 적응을 잘 할까? ‘친구들에게 괴롭힘, 따돌림을 당하거나, 돈이나 학용품을 빼앗기지 않을까?’ 라는 걱정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생 17%에 달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7년 12월에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통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설문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이 17%이었으며 그중 3%는 일상적으로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 발생장소는 교실이 33%, 발생시간은 쉬는 시간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같은 반 학생이 48%이며 가해 이유는 26%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41%가 장난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일상생활을 고통스럽게 하고, 미래의 삶마저 빼앗아가는 커다란 문제이다. 위의 통계자료에서 보듯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공간에 있어 일상적으로 폭력이 행사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항상 불안하며, 피해자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행동에 관계없이 가해자의 의도 혹은 기분 따라 폭력이 행사되는 경향이 많고,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생활하므로 폭력이 장기적이고 지속화되기 쉽다. 또한 폭력이 학습화 되어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개연성도 높다.

학교폭력은 심각한 정서적·사회적 문제 일으켜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에게 심각한 정서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피해학생은 불안과 두려움, 대인기피,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행동장애등으로 인해 또래 발달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 부적응하는 사례가 많다. 가해학생 역시 불안, 분노, 공격적 충동성을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장애를 가지며,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일상성과 지속성은 군대폭력과 가정폭력과 같이 폭력이 제도화 되고, 정당화되기도 한다.

또한 학교 폭력은 가정이나 교육계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피해·가해 학생의 가정이 자녀의 폭력 사건으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 재정적, 사회적 피해도 엄청나다. 심지어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피해·가해 학생과 관련된 담임이나 담당교사는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엄청난 부담감과 그 후유증으로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며, 심지어 학교를 떠나고 싶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학교폭력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이 얹혀 있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 사회 등 각각의 역할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교육자치 시대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관련법(2004.7.30) 제9조, 1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부터 분쟁에 대한 협의 조정까지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도교육청이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에 관한 절박성과 진정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단위학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의 양상은 많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관한 진정성과 절박성은 예산편성을 통해 드러난다. 2009년 전라북도 학교폭력과 생활지도에 관련된 예산은 약 27억이다(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주요사업은 배움터지킴이 운영,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및 우수사례집 발간·보급, 학교폭력다발지역 순찰 및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계도활동, 생활지도 담당교원 선진사례 국외연수(50명), 친한 친구교실운영, 안전교육실습용 소화기 보급(중학교 91개교), 학교폭력예방 자문단 운영, 에듀닥터제 운영,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대안교육시설 꿈누리교실 운영,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WeeCenter(학생생활지원단) 구축 운영 등이다.

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사업내용을 분석해보면 상당 수 예산이 해마다 해왔던 형식적인 사업운영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이 교과부에서 도교육청에 요구한 일괄적인 사업이며, 전북 지역의 특성, 전북지역 학교와 학생들의 현실에 맞는 사업은 일부에 불과한 상황이다. 심지어 안전교육실습용 소화기 보급 등은 학교폭력 예방과는 별 관련이 없는 사업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학교 폭력 문제 원인 분석부터 철저히

학교폭력 문제는 발생의 원인 분석부터 사후처리까지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과제이다.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학교폭력 전반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통계자료 구축과 원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단위학교에서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와 사건발생중심의 통계자료는 예방과 대책마련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라북도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표집대상으로 하여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자료 구축에 먼저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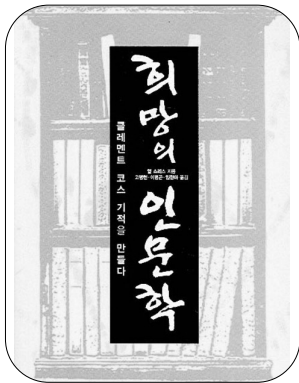
그리고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 학교폭력 관련 담당자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이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연찬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수행은 어렵고 힘들다. 매일 매일 사안 발생에 대처하면서도 잘하면 본전이요, 잘못하면 비난이 빗발친다. 그러므로 담당자는 조사연구, 통계분석, 분쟁조정능력, 상담활동능력, 법률이해 등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상황에 맞게 학부모와 학교를 제대로 지원해주고, 그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일은 사람이 한다. 그러므로 학교폭력관련 업무 담당자는 최소한 5년 이상 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인사정책을 마련하고 보상책도 있어야 한다.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진 교육전문가에 의해 전라북도 전체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중장기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학부모, 학생을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지 않게 해야

교육자치 시대 도교육청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학교폭력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믿음을 학부모에게 주는 것이다. 생명의 가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가뜰이나 성적 제일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힘들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서평

책 소개



“희망의 인문학”

클레멘트 코스
기적을 만든다

-엘 쇼리스 지음
-고병헌, 이병곤, 임정아 옮김
-이매진

최고의 경험이 희망의 싹을 틔운다

최병헌(전북체육중학교 교사)

새로운 상상력으로 학교교육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취도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우열을 가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집단을 편성하는 것은 동기를 강화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데에 효과가 없을뿐더러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갖게 될 열패감을 어찌할 것입니까? 누구에게나 최고의 경험과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과 믿음이 학교를 지배하는 가치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희망의 인문학’이 그런 좋은 예입니다. 인문학이란 고루하기 짝이 없고 어려워서 교양 있고 그 분야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식자층의 학문으로 치부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의 위기라 함은 대학의 문과 계열의 지망생이 날로 줄고 정부나 기업의 지원이 끊겨 교사위기에 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루살이도 팍팍한 사람들에게겐 그 말조차도 사치로 여겨질 만한 것입니다. 인문학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학문적인 영역에서만 연구되고 활용될 가치가 있는 걸까요?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클레멘트 코스는 왜 인문학이 희망을 말하는지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하여 만들어졌는지 그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11년 전 빈곤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 취재 중이던 초로(初老)의 미국 작가는 뉴욕의 한 교도소에서 살인 사건에 연루돼 8년째 복역 중인 여죄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작가: 사람들이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나요?

여죄수: 정신적 삶이 없기 때문이죠.

작가: 정신적 삶이란 뭐죠?

여죄수: 극장과 연주회, 박물관, 강연 같은 거죠.

작가: 아, 그러니까 인문학을 말하는 거군요!

여죄수: (한심한 듯) 그래요. 인문학.

왜 사람들이 가난하고 강박해졌냐는 질문에 “사내 중심가 사람들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 여성은 말합니다. 연극이나 박물관, 음악회, 강연회 등 정신적인 삶을 향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작가 얼 쇼리스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 여죄수의 눈빛은 그가 1995년 빈민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 ‘클레멘트 코스’를 창설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도소는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도소에서는 교화관계자들과 함께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리학자인 경우에도 전문가들보다는 아마추어들이 파견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재소자들이 교화프로그램에 굳이 참여하는 이유는 시간을 편안히 보내는 데에는 아무래도 다른 일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화프로그램 중에는 재소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뉴욕 인근의 증범죄자 수용 교도소에서는 ‘자기반영 드라마(revealing drama)’를 개발하여 재소자들에게 가정생활에서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요소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 드라마 프로그램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매사에 수동적이고 소심하게 되거나 반대로 폭력에 대해서 매우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재소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히려 ‘인간은 결코 폭력을 통해서 자기를 재창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 쇼리스는 여기서 영감을 얻어 인문학 강좌를 개설합니다. 1999년 가을입니다. 대학 수준의 인문학 강좌인 ‘클레멘트 코스’를 만드는데, 수강생은 모두 가난했습니다. 직장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낮은 임금을 받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노숙자, 전과자들로 출신들로 채워졌습니다. 교수진은 해당 분야의 실력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름지기 대학 수준의 강의는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이유 때문입니다. 클레멘트 코스의 교수들은 일류 대학의 조교수들이 받는 수준의 대우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모델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작년 서울시에서는 철학·문학·역사·예술·글쓰기 5개 분야로 구성된 인문학 코스를 경희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교수진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소설가 공지영, 도종환 시인 등 59명의 지식인으로 짜여졌습니다. 저소득주민반, 자활근로반, 노숙인반 등으로 총 12개 반에 313명의 빈민층이 입학하여 최종적으로 209명이 졸업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에 주목하게 됩니다. 인문학은 자기성찰의 유력한 도구라는 점, 일상의 삶과 동떨어진 고상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고 삶의 가치를 깨치게 하여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타자의 행복을 보장하는 일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민주주의는
모든 것을 무릅쓸 만한 가치가 있는 위험이다.”

문화비평

문화 다시보기/
워낭소리

“

워낭소리 들리는 들녘을 그리며

”

류정아(전주 여울초)

개학을 앞둔 지난 2월 말, 영화 '워낭소리'를 보았다. 다큐멘터리 영화가 벌써 200만을 넘어섰다는 뉴스 보도에 행여나 막 내릴세라 중 1, 초 3 두 아들 딸을 구슬러 극장으로 향했다. 다큐멘터리 영화라던데 두 녀석이 졸지 않고 잘 볼지 조금은 걱정을 하면서.

영화는 주인공 두 노인이 힘겹게 산 계단을 올라 산 중턱 높은 곳에 자리한 탑을 찾아 절을 하면서 누군가의 명복을 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뼈뼉새 우는 봄날 진달래가 산을 물들이던 경북 봉화 한 산골 마을 할아버지 집에 수의사가 다녀간다. 나이 40이 다 된 소를 진맥한 수의사는 한 일 년 더 살 수 있겠다는 말을 던진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안 그래” 하며 웃어넘기는 할아버지. 소는 이미 온 몸에 기력이 없다. 내 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조차 너무 힘들어보여 바라보기가 애절다. 눈 일, 발 일 하는 틈틈이 새로 외양간 식구가 된 어미소와 새끼소가 먹을 먹이까지 해 대느라 소는 하루도 쉴 날이 없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할아버지 정성이다. 쉴 날이 없기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여서 80이 다 되도록 아픈 다리를 끌고 늘 논으로 밭으로 다니는 할아버지는 일 하는 틈틈이 소에게 먹일 농약치지 않은 싱싱한 풀들을 한 짐씩 해다 소를 먹인다. 그런 할아버지를 소는 늘 달구지에 태우고 다닌다. 다리가 아픈 할아버지 발이다.

할아버지도 소도 말이 없다. 늘 일만 한다. 할머니만 입이 나와 불통불통한다.

“저 놈의 소새끼가 없어야 내 팔자가 필진데...”

“누구는 저래 싱싱한 영감 만나 팔자가 좋고 누구는 영감 잘 못 만나 죽어라 일만 하고...”

“라디오도 고물 영감도 고물...”

영화 보는 내내 할머니 입담이 터질 때마다 극장에는 웃음소리가 번진다.

유명 배우 한 명 없이 영화가 성공한 가장 큰 주역은 바로 할머니가 아닐까 싶다. 말 없는 할아버지와 소 사이에서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팔자 타령을 수없이 하고 때론 소새끼가 죽어버리라는 악담도 서슴없이 내 뱉고 할아버지를 욕박지르고 타박하는 것도 할머니다. 그렇지만 그런 할머니가 없었다면 할아버지와 소의 40년 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질 순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할머니가 못된 사람도 아니다. 늘 입으로 불통거리면서도 표안나게 할아버지도 위하고 소도 돌봐준다. 밍지 않은 악역이다.

또 한 가지 영화에 재미를 준 것은 대비의 효과였다. 이양기 대 소를 이용한 씨레질과 손으로 모심기, 농약 치는 장면 대 일일이 호미며 손으로 잡초를 뽑는 장면, 콤팩인 대 낫으로 벼베기, 잘 빠진 검은색 승용차 대 그 옆에서 있는 소와 달구지 등을 같은 화면에 대비시켜 할아버지의 고집스러움을 더 부각시켰다.

영화 감독은 대단한 사건 없이도 영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도록 영화 곳곳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둔 셈이다. 촬영과 편집의 묘란 이런 것이겠지.

영화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할아버지와 소가 나뭇짐을 해 오던 장면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다. 달구지 가득 나뭇짐을



신고 소 곁에서 나뭇단한 짐을 지게에 지고 천천히 밭을
옮기던 할아버지와 소의 느린 걸음은 너무도 닮아있었
다. 할아버지가 소고 소가 할아버지인양.

“좋은 세상으로 가그레이...”

소가 눈을 감기 직전, 할아버지는 소에게 씌워진 코뚜레를 풀어주었다. 소는 할아버지에게 고마워하고 할아버지 할
머니는 소에게 고마워하며 작별을 했다.

저 멀리 밭 가운데 무덤인지 두엄자리인지 둥그스름한 둔덕이 하나 보이고 할아버지가 밭 가에 앉아 쓸쓸한 시선을
멀리 던지며 영화는 막을 내린다. 할아버지 손에 들고 있던 그것, 소가 평생을 달고 다니던 ‘워낭’ 이다. 워낭소리가
들린다.

다행히 두 아들딸은 졸지 않고 영화를 보았다.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걸어오며 10살된 딸에게 물었다.

“영화 보면서 무슨 생각 했어?”

“소랑 할아버지처럼 열심히 일만 하다 죽으면 안되겠단 생각!”

간단 명료한 딸의 대답에 이렇다 저렇다 다른 말을 해 주지는 못했다. 뭐라고 댓글을 달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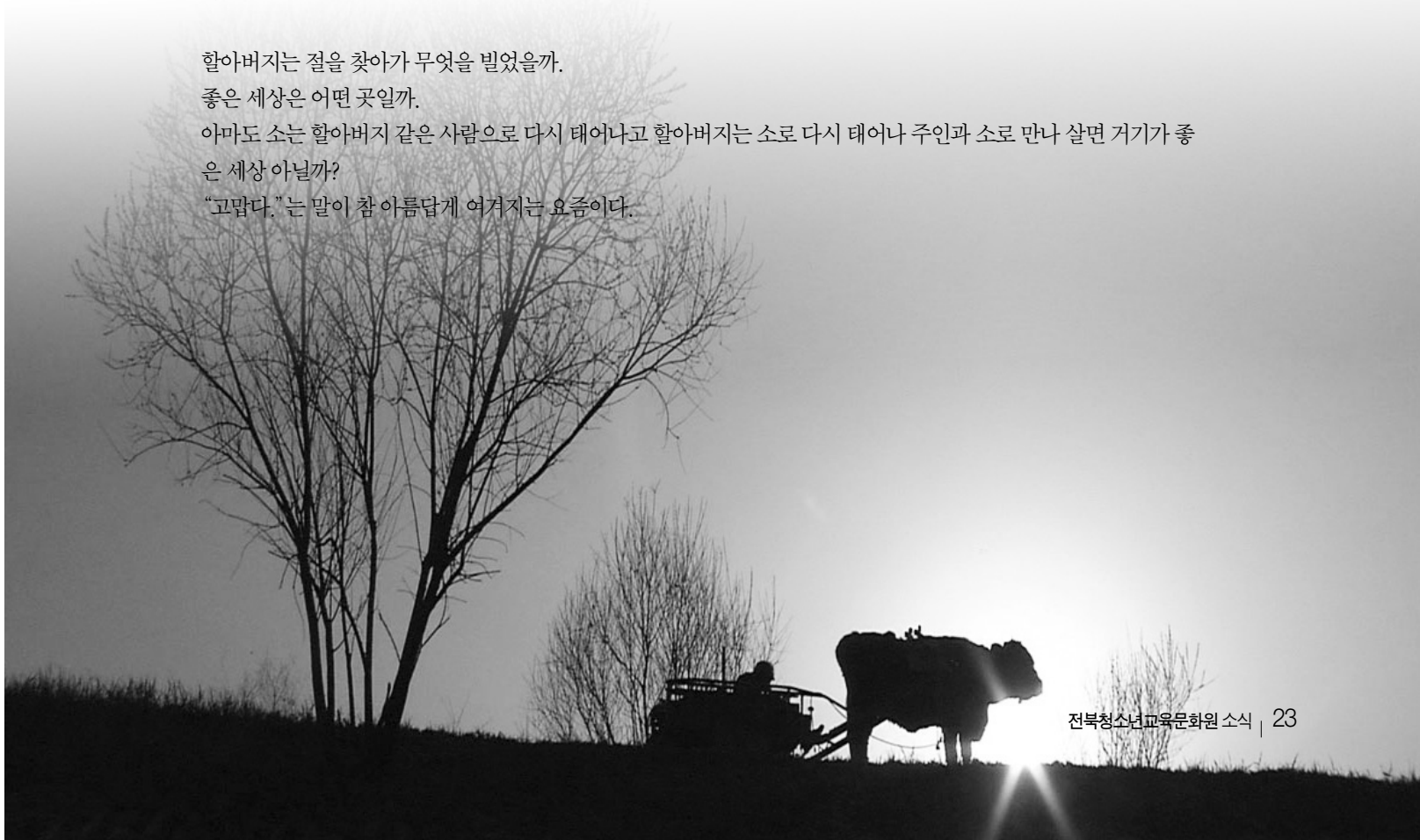
산골 마을의 순박한 늙은 부부와 늙은 소의 얘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끌렸다는 것에 나는 조금이나마 안도할 뿐이
다.

할아버지는 절을 찾아가 무엇을 빌었을까.

좋은 세상은 어떤 곳일까.

아마도 소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할아버지는 소로 다시 태어나 주인과 소로 만나 살면 거기가 좋
은 세상 아닐까?

“고맙다.”는 말이 참 아름답게 여겨지는 요즘이다.



투고

소규모학교
통합 문제

소규모 학교 통 · 폐합은 재고 되어야한다

송승용(전북농촌교육연구회 사무국장, 원평초 교사)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발표안에 60명 이하 초 · 중 · 고교를 통 · 폐합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해당 학교, 지역, 교육시민단체,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전라북도 교육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도내 학교 중에서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는 모두 230곳에 이른다. 초등학교가 158곳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65곳, 고등학교 7곳 등이다.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예외규정에 의하여 제외된 곳을 빼더라도 91개교는 폐교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는 도내 전체학교의 10%이상에 달하며 통 · 폐합이 본격 추진된다면 도내 농산어촌교육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부가 소규모학교 통 · 폐합을 서두르면서 내세운 근거들은 학교 간 경쟁을 통한 교육 정상화, 학교 구조 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학생들의

사회성 향상 등이다. 이는 단지 교육적 논리를 경제 논리로만 바라보는 관점이다. 소규모 학교를 통 · 폐합만 하면 농산어촌의 교육 문제와 위기가 극복된다고 생각하는 교육당국에 대하여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작은 학교가 오히려 효율적이다

첫째, 학교 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부분이다.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한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은 교육위기의 주된 내용을 인성교육의 위기, 인적 자원 양성의 위기, 계층 간 교육격차의 위기, 학력에만 치중하는 교육위기 등을 들고 있다. 오늘날의 이러한 교육위기는 학교가 작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대규모화 되어 생긴 문제이다. 훌륭한 인재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끈은 품성을 가지고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통해 습득된 지식들을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 소규모학교는 많은 강점을 지니고 있는 공간이다.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그 속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심신을 올바르게 키우고 단련하면서 미래생활에 대비하는데 최적의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작은 학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적 관계는 대규모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적 교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다.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고, 서로를 매우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소외되지 않는 가운데 모두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아이들 하나하나 모두를 살필 수 있어 학습 능력 향상 및 심성개발, 인성교육에 용이한 점이 많다. 또한 아이들은 숫자가 적어서 교사의 관심과 지도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는 특별한 기법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학교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작은 학교는 지역민의 화합 및 단결 공간

둘째, 예산 절감의 부분이다.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여 절감된 예산은 교육경쟁력강화 및 수월성 교육에 투자되는 것 같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자립형 사립고인 서울 하나고등학교를 허가하면서 650억 원에 해당하는 학교 터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작은 학교를 희생시켜 대도시의 학교에 투자를 확대하는 불평등한 교육 예산 집행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학생이 어떤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다양한 환경차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단순히 학교가 사라진다는 측면만 보아서는 안 된다. 학교가 사라짐으로서, 지역 문화센터로서의 구심점이 상실되고, 지역민의 화합 및 단결 공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지역민의 정서적 상실감은 감히 예산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작은 학교에서 인성 교육이 잘된다

셋째,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사회성 발달교육이 미흡하다는 주장은 너무나 주관적이다. 사회성 발달 교육이 무엇인가? 사회생활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타인과 협동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쓸모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사회성 발달 교육이다. 이는 학교가 크고 학생 수가 많다고 자연히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 급우 간 갈등, 왕따, 계층 간 위화감 등 이런 문제는 대규모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적 문제이다. 오히려 대규모 학교에서 사회성 발달 교육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작은 학교에서는 아이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지역민 모두가 소중한 존재다. 서로의 장단점을 모두 파악하여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주체가 된다.

큰 학교에서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왕따를 당하고, 학습적으로도 매우 부진한 아동이 전학을 온 적이 있다.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의기소침해 있었으며 아주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부모도 매우 걱정을 하며 상담을 하였다. 그러나 한 달 뒤 이 아이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로 즐겁게 생활하였다. 1년 뒤 부모의 사정으로 타 면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부모는 아이를 그 곳으로 전학 시키지 않았다.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버스 시간도 맞지 않아 등교시간만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이었는데도 말이다. 이유는 아이가 전학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동안 큰 학교에서 맞보지 못했던 친구 사랑, 동생 사랑, 학교 사랑, 선생님 사랑. 서로의 관심 속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소중함과 나의 소중함을 느낀 것이다.

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던 것을 작은 학교에서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사랑이라고 본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베풀어주고자 하는 마음.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은 행복한 세상이다. 이는 큰 학교에서가 아닌 작은 학교에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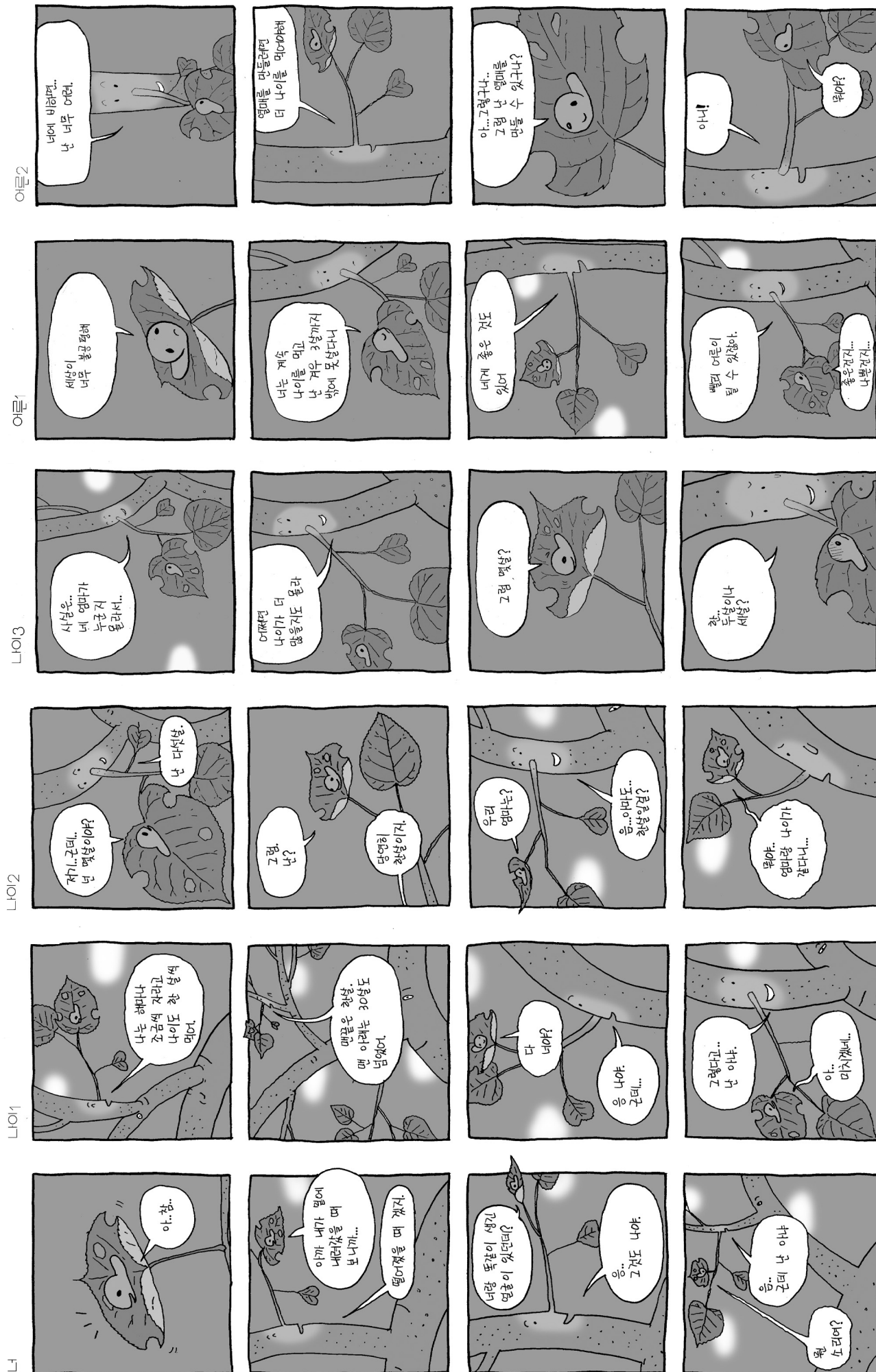
소규모 학교를 인정하고 적극 지원해야

이처럼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학교 통·폐합정책은 논리적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 정부와 도교육청은 교육경쟁력 및 수월성 교육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소규모학교에서의 교육활동도 다양성 교육으로 인정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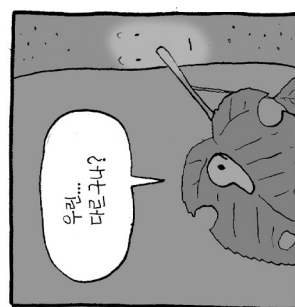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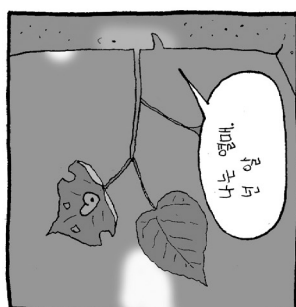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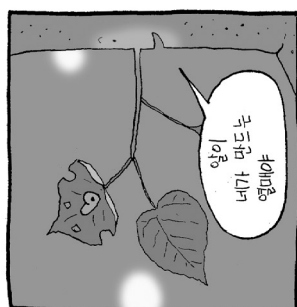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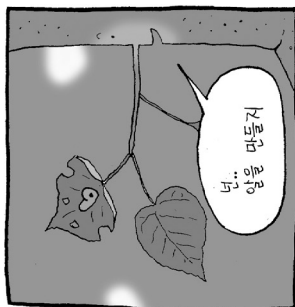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의 문제를 교육내적 문제만으로 여기고 해결하려 해서도 안 된다. 농산어촌에서의 학교는 농산어촌 사회의 일부분이다. 통·폐합으로 인해 인구의 이농현상, 문화적 소외 등 지역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종합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가 많은 전라북도교육청은 정부의 통·폐합 추진 정책에 무조건 동조하지 말고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알릴 수 있는 논리를 적극 개발하여 교과부의 통·폐합 정책이 수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생태민화 꼬마애벌레
말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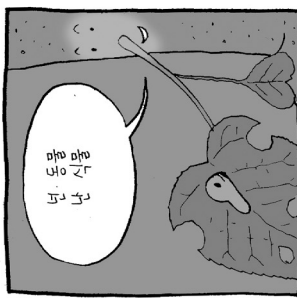
글 그림 / 황경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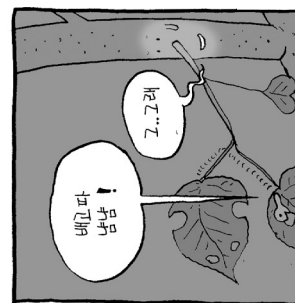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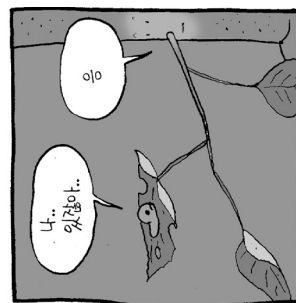
자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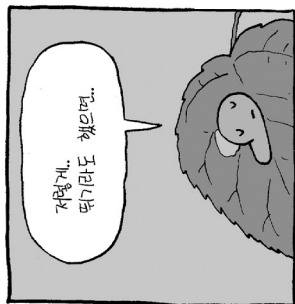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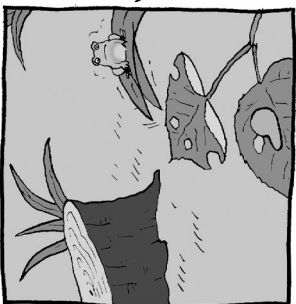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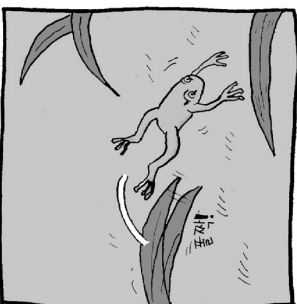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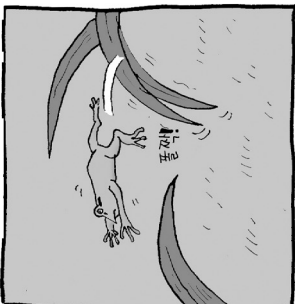
자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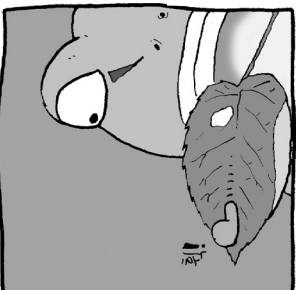
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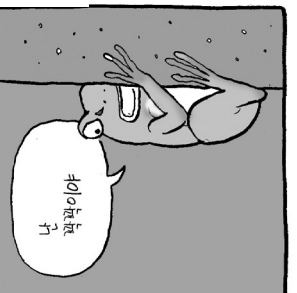
블러와



누그1



누그2



단독한 글자의 이따를 거대하게 주시킴..

연재

조경희 선생님의
들꽃이야기

봄 소식 알리는 ‘앓은 부채’

조경희(전주인봉초)

겨우내 잠자던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이틀 앞두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봄눈이 쏟아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함박눈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듯한 눈이었다. 때 아닌 봄눈이 쏟아지니, 빨리 세상구경이 하고 싶어 남보다 일찍 피어난 복수초, 앓은 부채, 노루귀, 변산바람꽃의 그 가녀리고 애처로운 얼굴이 그만 눈앞에 어른거린다. 이렇게 가끔은 3월에도 늦은 눈이 내린다. 내린 눈으로 인하여 설중화가 되어버린 이른 봄의 들꽃을 렌즈에 담기위하여 이미 야생화 매니아들의 마음은 잔설이 채 녹지 않은 낙엽 쌓인 숲속 어딘가를 찾아 떠났을 것이다.

이러한 때 산골짜기의 물기가 많은 습지의 웅덩이에서 피어나는 꽃이 바로 앓은 부채이다. 2월에서 3월. 얼음과 잔설을 뚫고 제일 먼저 싹을 틔우고 힘차게 올라와 꽃을 피워내 마침내 봄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앓은 부채는 잎보다 먼저 꽃을 피우며 복수초와 더불어 이른봄에 가장 먼저 피는 우리 야생화이다.

앓은 부채는 천남성과의 여러해살이풀로 한번 보면 기억이 될 정도로 매우 독특한 모습을 지녔다. 이 꽃은 자갈색의 얼룩얼룩한 불염포(꽃덮개)라 부르는 포가 도깨비방망이같이 생긴 꽃을 감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매우 이채롭다. 실제로 앓은 부채의 포 안을 만져보면 도깨비 방망이같은 꽃 주위의 온도가 주변보다도 아주 높다고 한다. 이렇게 유지된 온도는 특유의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작은 곤충들을 유인하여 꽃가루를 옮기는데 이용하게 된다고 하니 이 식물의 지혜가 여간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또한 천남성과 식물이 대부분 독성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앓은 부채도 독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꽃은 긴 겨울동안 굶주린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여 좀처럼 온전한 모습의 꽃을 보기가 어렵다고 하니 너무 일찍 피어난 앓은부채의 비애가 느껴지기도 한다.

앓은부채라는 이름에 얽힌 이야기 역시 재미있다. 여름에는 잎이 30~40cm나 되게 무성히 자라나 마치 넓적한 부채가 시원스럽게 펼쳐진 듯 한 모습이어서 이름도 앓은 부채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 꽃이 가부좌를 틀고 앓은 부처님의 모습과 비슷하고 꽃을 싸고 있는 불염포는 후광처럼 보여 ‘앓은 부처’라 불리던 것이 편안한 발음으로 변해 앓은 부채가 되었다고도 하는데 어느 쪽이거나 펍 흥미 있는 이름의 유래를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앓은 부채의 특유의 냄새와 독성은 스스로를 방어하며 살아가는 식물의 치열한 생존전략의 한 방법으로 보여 진다. 이른 봄에 남보다 먼저 일찍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는 이유 또한 들꽃이 살아가기 위한 스스로의 몸부림이란 생각을 하니 생명의 강인함과 경이로움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연재

장재성 선생님의
통일이야기

개성공단의 중요성과 경제성

장재성(익산남중)

개성공단은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선언의 결과로 시작되었다. 사업 주체는 현대아산으로 하고 총면적 65.7km² (2,000만평)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지금은 1단계 단지를 완료했고, 앞으로 3단계까지 개발을 예정하고 있다. 모두 개발되면 북측 50만 명 인력이 취업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2007년까지 계속 공단 입주 희망 기업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2008년 개성공단 입주 신청에는 높은 분 양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1월 현재 섬유와 봉제, 기계부품, 전 자 등을 중심으로 89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36,650명의 북측 노동자들이 근무한다. 2008년 총 생산액은 1,960만 달러 이며 지금까지의 누적 생산액은 5억 26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아직 국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조 금 부족하나 점차 생산성을 높이고 있어 가능성이 충분하고, 2008년 들어서는 오히려 노동자가 부족할 가능성에 대 비해야 할 실정이라고 한다.

이런 개성공단이 남북관계가 경색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008년 11월 남북 경의선 화물열차가 222회를 마지 막으로 운행을 중단됐고, 상주 인력이 축소됐고, 통행에도 제한이 생겼다. 2008년 12월 1일의 조치로 육로 통행이 많 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처럼 전날 만든 물건을 다음날 오전에 납품할 수 없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점차 불안해지고 있고 어떤 기업은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미래가치가 대단하며,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것은 북에 퍼주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까지 개성공단 투자는 남측 협력사가 5,000개로 10만 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북측만의 이익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노동집약적 산업 즉 제조업의 대안으로 개성공단 밖에는 없다. 중국 베트남 에 우리의 공장을 만들 경우 노동자의 대부분은 현지인들을 고용해야 하고 우리는 기획팀만 보내면 되기에 고용창 출 효과는 거의 없다. 개성공단의 경우 공장 관리팀, 물류 관리팀, 교육팀 등 모든 방면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 문에 연쇄 고용 효과가 나타난다. 어떤 경우에는 남측에서 일부 가공한 물자를 보내 완제품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남측의 고용 효과나 생산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서울이나 인천에서 1시간, 평양에서 2시간 거리로 투자 환경이 아주 좋은 편이다. 또한 유치되는 인력 이 매우 우수하다. 모든 노동자가 우리말을 사용한다는 평범한 사실 이외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10년이나 걸릴 일을 34년 안에 연구 개발이 가능한 우수 인력을 북측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이 중단되면 손실 또한 크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비 1조원과 업체의 투자 손실 5000억 등 눈에 보이는 손실 만으로도 1조 5000억에 달한다.

또한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있을 때 개성공단은 남북이 신뢰를 쌓고 유사시 최악을 막을 수 있는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다. 어찌 남과 북의 신뢰가 단시간에 구축될 수 있겠는가? 오랜 기간 개성에서 해주에서 남포나 원산 등지에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함께 하는 연습을 할 때 비로소 한반도는 안정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회원동정

신입회원을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새 가족이 되신 신입회원을 환영합니다.

이희석 (익산신동한의원)	최제윤 (전주온고을중)	이춘자 (전주성심여고)	이소임 (전주교육청)
라혜림 (완주봉서초)	임순일 (군산미룡초)	유미경 (전주도도미술학원)	서옥진 (익산교육청)
임경원 (고산동초)	김경순 (전주용흥초)	장효성 (전주서문초)	조성윤 (학부모)
권경자 (완주중)	정호일 (전주제일고)	송정옥 (아름다운가게 전주풍남점)	이혜숙 (한일장신대)
문수정 (완주중)	정현욱 (완주봉동초)	홍기태 (경기화성장안초)	이기종 (전주덕일중)
서옥주 (완주중)	김양근 (완주고산고)	황혜선 (경기)	윤효진 (학부모)
정은경 (완주중)	서유진 (전주신일중)	송숙향 (완주삼례중)	박지연 (전주대정초)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	정선아 (전주동중)	장진화 (경기화성동양초)	전현호 (전남영광 만서양만장)
김찬영 (익산부송중)	최제윤 (전주온고을중)	권효정 (전주완산초)	김영종 (회사원)
김양이 (한일장신대)	임순일 (군산미룡초)	허수희 (학부모)	강성희 (기업은행)
양숙희 (완주태봉초)	최원진 (익산합열초)	유효덕 (시민)	권선아 (기업은행)
김경순 (전주용흥초)	김용만 (진안청소년수련관)	양봉만 (전주성심여고)	고설희 (시민)
정호일 (전주제일고)	강미경 (완주고산고)	서영호 (전주전북중)	이춘지 (전주공고)
정현욱 (완주봉동초)	신영재 (전주생명과학고)	황순진 (전주완산여고)	양상규 (온소리예술단)
김양근 (완주고산고)	최낙권 (김제용지중)	이선녀 (정읍학산여중)	남은아 (전주완산초)
서유진 (전주신일중)	최우석 (전주전라고)	최현정 (전주온고을건축사무소)	고재근 (전주공고)
정선아 (전주동중)	조선 (전주전일관광)	임은하 (전주완산초)	

2009년 3월 정기인사에서 학교를 옮긴 회원 상황입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등

김종호(전주서신초→부안주산초)
김지연(김제월촌초→김제초)
서광춘(익산춘포초→익산흥왕초)
신기영(남원도동초→(파견)남원 영어체험학습센터)
윤일호(진안송풍초→진안중앙초)
임진영(전주효림초→정읍초)
임현주(익산춘포초→무주부당초)
장일권(무주무풍초→무주구천초)
장효진 (전주효림초→김제 남양초)
정영민(전주인후초→전주기린초)
정은숙(완주봉동초양화분교→완주봉동초)
최순철(진안주천초→진안백운초)
한일희(전주서일초→무주설천초)

중등

강요현(순창동계고→전주생명과학고)
강혜영(남원아영중→남원용성중)
권영남(김제여중→부안주산중)
김명희(부안상서중→부안보안중)
김윤수(정읍여고→전주술내고)
김은이(전주영상미디어고→임실오수고)
김은자(순창구림중→순창중)
김임옥(전주영상미디어고→이리공고)
문채병(고창교육청→전주생명과학고)
박철휘(전주풍남중→정읍중학교)
서정희(완주고산고→전주선화학교)
소옥미(전주전라중→순창중)
신영재(순창북흥중→전주생명과학고)
신행숙(완주한별고→부안고)

우덕희(김제자영고→진안동향중)
이미영(완주고산고→전주공고)
이미영(완주한별고→이리고)
이상훈(진안중학교→전주고)
이원형(완주고산고→전주공고)
이재선(전북사대부고→이리공고)
이형월(전주서중→임실삼진중)
정선아(장수천천중→전주동중)
정호일(장수고→전주제일고)
지연호(전주서곡중→경기안산경수중)
최낙권(순창북흥중→김제용지중)
최상미(완주고산고→전주여고)
최성남(고창고→전주고)
최진성(전주공고→완주한별고)
최태숙(익산지원중→익산용안중)

축하드립니다.

김영권(완주고산) 회원 2월 7일 결혼
김형범(전주완산고)회원 2월 8일 결혼
최상렬(전주삼천남초)회원 첫째 득남, 으뜸회원상 수상
김혜련(전주팔복초)회원 첫째 득남

김항윤 장학사(전북학생해양수련원→전라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전을석 장학사(익산교육청→전라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노장환(전주서문초)회원 넷째 득남
윤영집(전주아중초)회원 셋째 득녀

사업안내

희망을
주십시오

「북녘 어린이 콩우유 사업」 후원자 모집

지금 이 기회입니다. 북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우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매월 1구좌 5,000원씩의 후원금을 모아 평양 양각도 탁아소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보내는 「북녘 어린이 콩우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5,000원이면 북측 어린이 1명에게 매일 1잔의 콩우유가 공급됩니다. 2006년 2월에 시작하여 현재는 약 130구좌(매월 65만원) 정도가 매월 보내지고 있습니다.

2008년 9월에 다시 후원자를 모집하여 소식지를 만든 지금 50여 구좌가 들어왔습니다. 아울러 연말 문화원의 밤에서 기계를 보낼 성금을 모금하려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신청서가 홈페이지(www.blue21.or.kr)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시어 담당자(장재성, rudnf78@hanmail.net, 010-4655-9803)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C의 의미



꿈이 움트는 나무
문화가 꽃피는 나무
희망이 영그는 나무

자연(해 · 달)과 문화와 어른, 아이가
어우러진 무지개 빛깔의 나무로 형상화

곧고 풍성한 나무는

- 청소년(어린이)의 꿈과 희망
- 바른 교육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무지개 빛깔의 다채로운 동그라미가 서로 잇닿은 모습은

- '청소년(어린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 교육자치 시대에 교육주체(지역주민, 교사, 청소년)의 소통과 화합을 의미한다.

꿈 · 문 · 희 무지개 나무는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를 실현하고 확대하기 위한
의지의 표상이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회원/후원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 계좌 : 전북은행 543-13-0310862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회원이 되시면 전북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 교육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 및 세미나, 교육 행정 감시 및 교육대안 제시활동, 독서교육 사업, 통일교육 사업, 전북 교육네트워크 구축 등 전북지역 교육 발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후원금은 위 사업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 ☎ 905-0218 / www.blue21.or.kr



사단 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JeonBuk Teenagers Educational & Cultural Center

www.blue21.or.kr

560-83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55-8(3층)

☎ 063) 905-0218 Fax 063) 227-0650

전북 청소년교육문화원 체육 한마당 제1회 이사장배 배드민턴 대회

1. 대회 개요

일 시 : 2009년 5월 16일(토) 오후 2시~

장 소 : 전주 서문초등학교강당 (서신동 소재)

2. 제 1회 이사장배 배드민턴 대회

- 경기종목: 초급 / 중급(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 구 성 : 남자복식/여자복식/혼합복식(남북/여복과 중복신청 가능)
- 회 비 : 참가자 1인당 1만원(농협 501109-51-032465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문의/접수: ☎ 905-0218 (Fax 227-0650 / www.blue21.or.kr)
- 당일 참석하시면 푸짐한 상품 및 경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 2009, 제9회 전북 청소년 통일한마당

역사적인 6. 15 남북정상회담 9주년을 기념하여 청소년들에게 민족 화해, 평화, 통일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제9회 청소년 통일한마당을 개최합니다.



- 일 시 : 2009년 6월 13일(토) 9시 30분 ~ 12시 30분
- 장 소 : 전주국립박물관
- 주 최 :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후 원 : 전라북도교육청, 국립전주박물관
- 행사 일정 및 프로그램

초등	중등
평화놀이마당, 참여마당, 사진전 관람, 등록 기념식	평화놀이마당, 참여마당, 사진전 관람, 등록 기념식
통일 글쓰기 대회	통일노가바대회
통일그림그리기대회	통일글쓰기대회
초등 놀이마당	중고등 노가바 시상식

